|  |  |  |
| --- | --- | --- |
| 근현대교회사 |  | 20221109 임환묵 |

19세기 영국의 기독교

19세기 영국의 기독교는 복음주의 부흥의 시대였다. 복음주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조하는 기독교의 한 형태이다. 복음주의는 영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 사회 복지, 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복음주의 부흥은 18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19세기에 계속되었다. 이 부흥은 윌리엄 윌버포스 경과 존 뉴튼 경을 포함한 여러 복음주의자 지도자의 설교와 글에 의해 주도되었다. 복음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조했으며, 사람들이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다.

복음주의 부흥은 영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복음주의자들은 교육, 사회 복지, 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도록 촉구했으며, 술, 도박, 노예 제도를 포함한 여러 사회 악에 반대했다.

복음주의 부흥은 영국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에도 영국의 많은 교회는 복음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복음주의는 영국의 문화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잉글랜드의 기독교

다음은 19세기 영국의 기독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다.

## 윌리암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노예 제도의 폐지를 위해 싸운 영국의 정치가이자 복음주의자이다

웨슬리가 하류 계층을 복음화하였듯이, 그는 동료들과 함께 **상류 계층을 복음화**했고, 그들의 재산과 영향력을 수많은 선한 사업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에 힘썼으며, **성공회선교회(1799)**와 **영국성서공회(1804)** 설립에도 기여했다.

## 샤프츠 베리 백작 7세

19세기 후반에는 복음주의 사회개혁자였던 **샤프츠 베리 백작 7세**(Seventh Earl of Anthony Ashley Cooper Shaftesbury)는 기독교의 이상과 맞지 않는 시회적 환경을 개선하려고 힘을 쏟았다. 그는 확고한 복음적 정신을 가진 자로서 사회의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평생을 바쳤다. 19세기 중엽의 **주도적인 복음주의자**로서 형식주의와 합리주의 그리고 기독교와 무관한 사회주의 등을 철저하게 배격했다. 그는 영국의 **귀족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

## 존 하워드

복봄전도자인 **존 하워드(John H Howard, 1726-90)**는 비국교도로서 존 웨슬리의 신앙부흥에 감화를 받고서 자신의 삶과 재산을 감옥 개혁에 헌신했다.

영국 국교회의 복음적인 기운은 19세기 동안에 걸쳐 유능한 설교자들을 계속 배출해 내었다. 그 설교자들의 목표는 영국은 물론 땅 끝까지 복음화시키는 것이며 종교개혁의 교리들을 순수하게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그들 중에도 1880년에 리버플에서 초대 주교를 지냈던 **라일**(J.C. Ryle, 1815-1900)은 대표적인 사람이다.

19세기 초 1804년에〈영국 및 해외 성서공회〉(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가 설립된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성서공회가 세계의 주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반포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사역을 위해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다.

19세기는 영국 교회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였다. 연맹， 연합회와 같은 단체들이 교회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생겨났다. 이러한 단체들은 상호 협력과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며 선교사역을 촉진시키고 교회의 증언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기관들 가운데 하나가 1846년에 교회와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복음적 원리들을 제시하기 위해 결성된 ＜복음주의 연맹〉(Evangelical Alliance)이다. 이 연맹은 북아메리카와 유럽 전역에서 회의를 개최했으며 교회의 안과 밖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였다.

또 다른 유명한 기관은 ＜기독교 청년 연합회〉(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YMCA)이며 이것은 1846년 죠지 월리엄스(George Williams)가 런던에 있는 성 바울 교회(St. Paul’s Church)의 뜰에서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시작한 것이다.

조지 뮬러(George Muller, 1805-1898)가 살았던 19세기 유럽 사회는“더 이상 신은 필요 없다”는 자만이 팽배했다. 뮬러는 이린 불신앙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은 과거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브리스톨의 한 작은 마을에 고아원을 설립했다. 뮬러의 고아원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뮬러가 개척한 베데스다 교회는 초대교회의 정신을 실천하는 ‘형제단 운동’으로 발전해 영국을 비롯, 유럽 전역과 미국, 호주 등에 퍼져 있다.

당시 런던의 빈민가에서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던 많은 소년들을 위한 집들이 1866년 바너도(Earnircto) 박사에 의하여 문을 열게 되였다. 얼마 후에는 제임스 피건 (James W. C. Pegan)이] 런던에서 빈민학교를 시작하고 영국 각처에 흩어져 있는 부랑 아동들을 위한 집을 세웠다. 월리암 쿼리어 (William Quarrier)도 스코틀랜드에서 이와 유사한 기관들을 세웠다.

19세기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가지 형태의 자선사업에 참여했다. 프레드릭 차링턴(Frederick N. Charington)은 자기 자산을 런던 동부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확장하는 데 사용했다.

**여성**으로서 **대니얼스**(Miss Daniels)는〈병사들을 위한 집〉(Soldiers Homes)을 세웠고, **아그네스 웨스턴(**Miss Agnes Weston)은 각 항구마다 〈선원들의 안식처〉(Sailors Rest Homes)를 세웠다. 〈노인 순례자 교우회)(An Aged Pilgrims Friend Society)에서는 곤궁에 처해 있는 노년층 신자들을 돌보기 위한 양로원을 마련했다. 이 모두가 복음에 기초한 사역들이었다.

이러한 운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로 확대되었다. 영국에서는 존 윌킨슨＜John Wlkinson)이 (밀드메이 선교회)(the Mildmay Mission)를 시작했다. 또 이스라엘을 위해 데이비드 바론(David Baron)，쉔버거(C. A. Schonberger) 등이〈'히브리 기독교 선교회〉(The. Hebrev Christian Testimony)를 세웠다.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은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사업은 계속 발전되어 갔다.

찰스 해이든 스펄전

19세기 중엽 영국의 찰스 해이든 스펄젼 (Charles Haddon Spurgeon)은 탁월한 설교가였다. 1855 - 1892년 사이에 행했던 스펄젼의 매주 설교는 책으로 인쇄되어 많은 양이 팔렸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가장 잘 알려진 논핑가인 로버트슨 니콜(Robertson Nicholl )은 스펄젼의 설교에 다음과 같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스펄젼의 영향력은 잠시 유행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었다\_. 오늘날 (1898년)끼지도 서림들은 그의 우렁찬 음성, 유머, 그리고 웅변술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인쇄된 설교의 능력과 그것의 끊임없는 생명력은 스펄젼의 말재주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설교들이 점증하는 관심으로 연구될 것이며 19세기에 나타난 기독교 경건 문헌 가운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는 사실이다. o] 설교의 메시지는 그 시대의 다른 모든 설교들이 잊힐지라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스펄젼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열심히 일했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으며, 그가 미쳤던 막대한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의 활동은 많은 열매를 거두었으며 그가 미친 세계적인 영향력과 명성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토마스 찰머스와 스코틀랜드의 자유교회

19세기 중엽 스코틀랜드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1690년에 폐지되었던 성직임명권(patronage)이 1712년에 다시 회복되었는데, 이것은 그 후 계속적으로 교회의 평화를 깨뜨렸고, 여러 작은 분파들의 탈퇴를 초래했다. 성직 임명권 문제는 교구 목사가 평신도 성직 임명권자(la patron)에 의해 임명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교회 자체에 의해 선출(청빈) 되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였다. 스코틀랜드 교회에는 온건파(the Moderates) 와 복음주의파"(the Evangelicals)가 있었는데, 이 중에 온건파는 교구의 자유를 반대했고, 개혁의 제안에 비우호적이었다. 그 결과 양파간에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이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를 움직인 인물은 수학자요 사회경제학자요 그리고 신학자요 설교자인 **토마스 찰머스**(Thomas Chalmers, 1780-1847)였다. 찰머스는 스코틀랜드가 낳은 가장 위 대한 성직자 중 한 사람이었고 탁월한 행동가였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찰머스는 런던에서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그래서 찰머스는 1843년에 474명의 목회자와 그들을 따르는 무리를 이 끌고 스코틀랜드 국교회를 떠나서 자유교회(Free Church:국교회와는 달리 국가와 관계를 단절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음)를 세웠다. 이 사건은 ‘스코틀랜드 교회 분열'(the Disruption)로 알려졌다.

국교회를 떠난 자유교회는 찰머스의 지도하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1843년과 1845년 사이에 500개의 예배 처소가 생겨났고 그 건축비로 32만 파운드의 기부금이 걷혔다. 찰머스의 지도하에 자유교회는 점점 성장했다.

찰머스는 또한 스코틀랜드의 빈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공헌을 했다. 그의 구빈이론에 입각한 구빈 정책에 따라서 그가 시행한 빈민구제의 궁극적 목적은 구제받는 자의 영적 복지(spiritual welfare)와 영혼 구원에 있었다.

자유교회는 공격적인 복음주의적 선교 단체가 되었다. 이 교파에는 800개의 교회와 약 1,000명의 성직자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1900년에 자유교회는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Scotland)와 통합하여 스코틀랜드 연합자유교회(United Free Church of Scotland)가 되었다. 그러나 ‘Wee Fees’ 라고 알려진 소수 집단은 통합을 거부하고 계속 스코틀랜드 자유교회(Free Church of Scotland〉로 존속했다. 1919년에는 스코틀랜드 연합자유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 (Church of Scotland)가 통합하여 스코틀랜드 교회 (Kirk of Scotland)가 되었다.